



미 증시, PPI 둔화와 빅테크 강세에 상승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5일(수) 미국 증시는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차 완화된 가운데, 반도체주는 약세를 보였지만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 마감. (다우 +0.29%, 나스닥 +0.62%, S&P500 +0.38%)

미국 6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완화되고 투자심리가 개선. 헤드라인 PPI는 전월 대비 0.3% 하락해 시장 예상치(0.0%)를 밑돌았으며,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5.5%로 예상치(6.2%)를 하회. 근원 PPI 역시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하는 데 그치며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음. 소비자물가에 이어 생산자물가에서도 물가 압력 둔화가 확인되면서 시장금리의 추가 상승 우려가 완화. 이는 성장주에 적용되는 할인율 부담을 낮추며 증시 전반의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요인으로 작용.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과 가이드نس 상향이 경기와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신뢰를 강화한 점도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 ASML은 2분기 매출 93억유로와 순이익 29억유로를 기록했으며, 2026년 연간 매출 전망을 기존 360억~400억유로에서 430억~450억유로로 대폭 상향. 전망 범위의 중간값 기준으로 380억유로에서 440억유로로 약 16% 높은 수준이며, 매출총이익률 전망도 기존 51~53%에서 54~56%로 상향 조정.

최근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과 AI 투자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EUV 장비 수요와 관련 투자가 여전히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이는 AI 투자 사이클의 구조적인 성장 기대가 아직 훼손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며, 반도체 및 AI 생태계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평가.

한편 반도체 일부 종목의 조정에도 AI 투자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훼손되기보다는 자금이 반도체에서 플랫폼·클라우드·소프트웨어 등 AI 수혜 업종 전반으로 확산되는 순환매가 전개. 마이크론(-8.15%)과 SK하이닉스 ADR(-9.00%) 등 메모리주는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과 중국 메모리 업체의 공급 확대 우려로 큰 폭 하락했지만, 매도세가 기술주 전반으로 확산되기보다는 애플(+4.00%), 아마존(+3.00%), 알파벳(+3.17%), 마이크로소프트(+2.78%) 등 대형 플랫폼 기업으로 매수세가 이동하며 주요 지수 상승을 견인.

애플은 알리바바의 Qwen 모델을 iOS·iPadOS·macOS·visionOS 전반에 적용하고 바이두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 내 AI 서비스 출시를 위한 핵심 규제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 아마존은 AI 자체 칩과 AWS 인프라 수요가 공급능력을 웃돌 정도로 견조하다는 점이 재부각됐으며, 알파벳은 AI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대규모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 계획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들의 AI 도입 확대와 데이터센터 투자 지속 기대가 주가를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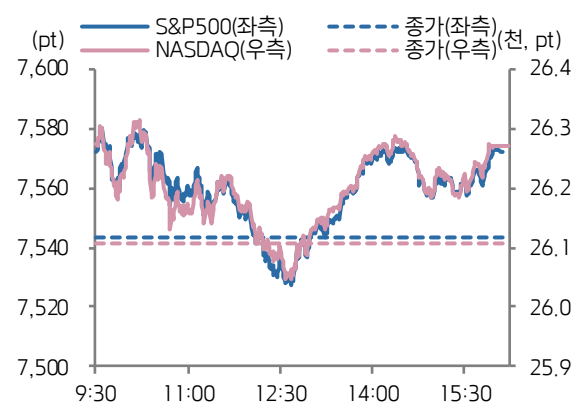
전일 코스피는 미국 물가지표 둔화에 따른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 완화와 글로벌 반도체주의 급반등,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7,000선을 회복하며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큰 폭 상승 마감. (코스피 +6.24%, 코스닥 +5.80%)

금일 코스피는 코스피200 야간선물(-4.53%)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2.08%)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코스피는 약세 출발할 것으로 예상. 뉴욕증시에서 반도체주가 하락한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전일 반도체주 중심의 상승분을 일부 되돌리는 흐름이 나타날 전망. 다만 최근 급등했던 AI·반도체주에서 차익실현이 나타난 반면, 애플·알파벳·아마존 등 대형 플랫폼 기업으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순환매가 전개.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우려 등이 반도체주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대형 플랫폼 기업의 강세를 고려하면 AI 투자 수요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지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AI 투자 확대에 기반한 반도체 업종의 중장기 상승 흐름은 아직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 또한 미국 물가지표 둔화에 따른 연준의 통화긴축 우려 완화와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외국인 수급 개선 기대는 지수 하락 압력을 일부 완충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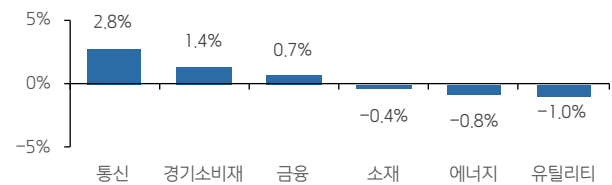
추세적인 상승세를 위해서는 AI 수요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 당분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AI 투자 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일 발표 예정인 TSMC의 실적과 AI 반도체 수요 가이드에 주목할 필요. 또한 금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나 시장에서 상당 부분 선반영된 만큼 국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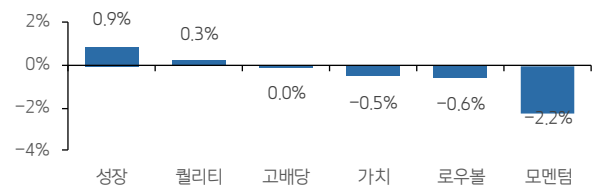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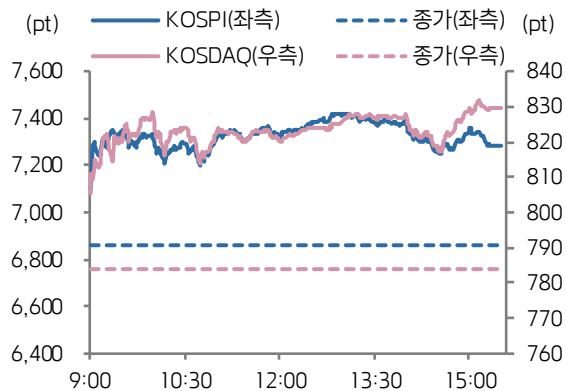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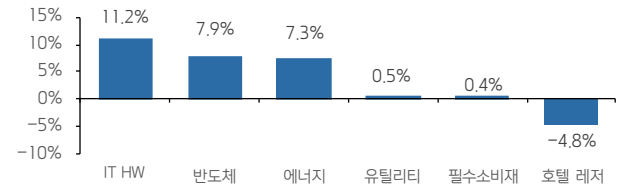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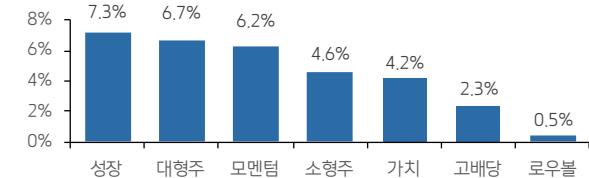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327.50	+4.01%	+20.69%	GM	77.64	+1%	-4.09%
마이크로소프트	395.63	+2.78%	-17.83%	일라이릴리	1,156.63	+0.35%	+7.99%
알파벳	370.92	+3.17%	+18.66%	월마트	112.53	-1.03%	+1.4%
메타	681.31	+3.07%	+3.4%	JP모건	346.91	+1.17%	+9.19%
아마존	254.96	+3.02%	+10.46%	엑손모빌	144.51	-0.4%	+21.71%
테슬라	394.46	-0.43%	-12.29%	셰브론	181.60	-0.09%	+21.42%
엔비디아	212.50	+0.33%	+14.08%	제너럴일렉트릭	112.53	-1%	+1.4%
브로드컴	394.28	+1.33%	+14.34%	캐터필러	914.30	-2.04%	+60.28%
AMD	529.14	-3.46%	+147.08%	보잉	218.12	+0.47%	+0.46%
마이크론	904.28	-8.02%	+217.01%	넥스트에라	89.10	-0.5%	+12.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7,284.41	+6.24%	+72.86%	USD/KRW	1,490.75	+0.06%	+3.56%
코스피200	1,163.90	+6.56%	+92.07%	달러 지수	100.50	-0.41%	+2.22%
코스닥	829.43	+5.8%	-10.38%	EUR/USD	1.15	+0.38%	-2.41%
코스닥150	1,442.47	+6.51%	-6.78%	USD/CNH	6.77	-0.08%	-2.97%
S&P500	7,572.40	+0.38%	+10.62%	USD/JPY	162.19	-0.04%	+3.5%
NASDAQ	26,269.23	+0.62%	+13.02%	채권시장			
다우	52,658.64	+0.29%	+9.56%	가격	DTD(bp)	YTD(bp)	
VIX	15.67	-5.03%	+4.82%	국고채 3년	3.867	-2.3bp	+91.6bp
러셀2000	2,976.26	+0.39%	+19.92%	국고채 10년	4.332	-0.8bp	+94.7bp
필라. 반도체	12,398.89	-2.08%	+75.05%	미국 국채 2년	4.135	-5.9bp	+66.2bp
				미국 국채 10년	4.547	-4.2bp	+38bp

다우 운송	22,111.40	-0.58%	+27.39%	미국 국채 30년	5.079	-2.5bp	+23.6bp
상해종합	3,955.58	-0.29%	-0.33%	독일 국채 10년	3.122	+0.9bp	+26.7bp
항생 H	8,184.38	+1%	-8.18%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7,185.43	+0.17%	-9.43%	WTI	79.60	+0.33%	+39.55%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84.95	+0.26%	+39.61%
Eurostoxx50	6,265.58	-0.23%	+8.19%	금	4,051.80	-0.44%	-8.75%
MSCI 전세계 지수	1,128.14	+0.59%	+11.19%	은	57.43	-2.83%	-18.65%
MSCI DM 지수	4,876.61	+0.38%	+10.07%	구리	634.10	-0.58%	+11.6%
MSCI EM 지수	1,653.01	+0.22%	+17.7%	BDI	2,980.00	+0.68%	+58.76%
MSCI 한국 ETF	171.64	-3.02%	+76.55%	옥수수	469.50	+1.95%	+1.95%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677.50	+5.04%	+24.14%
비트코인	64,937.62	+0.63%	-25.91%	대두	1,201.75	+0.9%	+12.89%
이더리움	1,922.74	+2.56%	-35.43%	커피	326.75	+0.2%	+2.0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15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